

리버럴아츠 대학(Liberal Arts College)이란?

대학 입시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한인들 가운데는 리버럴아츠 대학(Liberal Arts College)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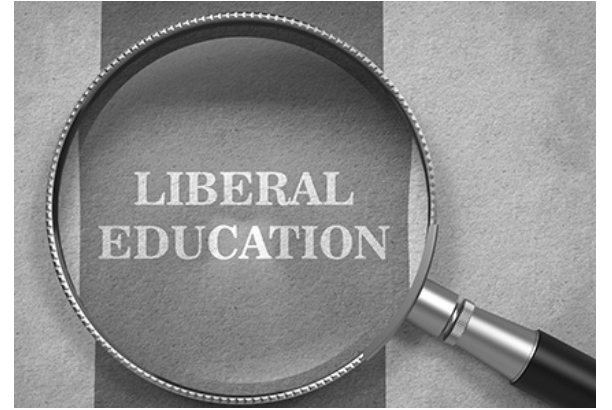
미래 교육연구소(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대학은 크게 연구중심대학(National University)과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이고, 리버럴아츠 대학은 학사과정만 있는 대학이다. 종종 석사과정이 있기는 하나 매우 제한적이다.

리버럴아츠 대학은 영어,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과 같은 인문 사회학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많이 사교하고 많은 글을 쓰게 한다.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없다. 주된 목적이 학부에서 공부하는 기초를 가르치려는데 있다. 대부분 사립대학이고 학생 수가 적다. 이 대학들은 균형 잡힌 학습 경험과 창의

적인 학습 능력, 지적 호기심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이 매우 다양화되어서 공학, 비즈니스도 제공한다. 또 일부 리버럴아츠 대학은 대학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리버럴아츠 대학은 이런 장점을 지니고 있다.

- 1. 학생 중심 대학이다.**
연구중심대학은 교수 중심이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 연구하고 출판하는 데 관심이 많다. 리서치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이끈다. 그러나 리버럴아츠 대학은 교수들이 학부 교육에만 몰두한다.
- 2. 소수로 운영된다.**
연구중심대학의 주립대학 학생 수는 몇만 명이다. 그래서 토론 수업이 쉽지 않다. 그러나 리버럴아츠 대학은 소수 정예로 운영되며 교수와 친밀하게 지내고 모든 수업은 교수가 직접 한다.
- 3. 학습 동기가 뚜렷한 학생들이 모인다.**
리버럴아츠 대학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일반 연구중심대학보다 월등히 높다. 박사 배출 비율이 아이비 리그 대학보다 훨씬 높다.



- 4. 동문들의 유대가 강하다.**
규모가 작은 만큼 오히려 동문 간의 유대와 협력이 더 강하다.
- 5. 조교가 없다. 교수가 직접 가르친다.**
교수가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를 한다. 실험 실습도 마찬가지다.
- 6. 장학금·재정보조가 많다.**
연구중심대학보다 재정이 튼튼하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많이 해 준다.

고교 내신성적 어떻게 관리할까?

대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신성적(GPA)이다. 하지만 어떤 수준의 과목을 듣고 성취한 것인지도 중요하다. 대입 컨설팅 기관인 'IvyFocus' (www.ivyfocus.com)가 입학사정관들이 GPA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개했다.

■ 수업 선택

간단히 말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장 어려운 수업을 수강하면 된다. 어떤 학생들은 AP는 아예 도전하지도 않고 이전 학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과목을 마쳤음에도 Honor나 AP 레벨로 선택하지 않고 계속 레귤러 수준의 과목을 듣는다. 수많은 학생들을 경험한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내용의 성적표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다섯 개 주요 고교 과목(core subjects)은 4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지원 학생의 성적표는 대학활동의 예고편이다. 고등학교 최고 난이

도 수업도 대학의 일반 수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AP를 수강하지 않았다는 어려운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P수업을 듣는 두 번째 이유는 대학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교양과목 등의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AP를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대학에서 기본 수업을 건너뛰는 것이 가능하다.

■ 성적의 흐름

학년에 관계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흐름이 중요할 때도 있다. 11, 12학년 때의 성적이 더 중요한 이유는 저학년 때보다 더 어려운 수업을 듣기 때문이다. 1학기보다 2학기 성적이 더 중요한 이유도 같은 이유이다. 더 어려운 수준을 다루기 때문에 더 확실한 평가가 된다. 좋은 성적은 어려운 수업에서 나올 때 그 의미가 있다. 성적이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 한들 11, 12학년에 쉬운 수업을 듣고 나온 결과라면 무의미하다.

■ GPA 해석

성적증명서는 4년에 걸친 성적으로 구성되지만 각 대학마다 입시 사정 반영 범위가 다르다. 10~12학년의 성적을 보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9~11학년의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UC계열은 10~11학년 안 들었던 모든 "a-g" (UC계열의 15가지 필수 과목 목록) 과목들에 기반한 성적들을 평가하지만 Honors, AP, IB 과목들의 이수 여부도 함께 분석한다. 또 많은 대학들이 대부분 1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요구한다. 명문 사립대들은 GPA를 단순한 숫자로 보기 보다는 성적표를 통해 학생의 학과목 선택 기준과 개성을 읽는다. 어려운 과목들을 선택하여 지적 호기심을 보여 주는 학생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으로 보며 일반 수업만 이수한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